

武宗의 廢佛과 權力內部的 派閥的 對立

金 文 經*

I

安史의 亂을 전후로 하여 漸次的으로 增大해 갔던 宦官勢力은 끝내 唐 帝國을 滅亡케 했던 한 原因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憲宗(806~820)이후 唐末(907)까지 在位했던 10帝 가운데, 宦官들에 의하여 殺害된 皇帝가 둘이며 그들에 의하여 擁立된 君主가 일곱^①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누구나 쉬 짐작이 갈만하다.

武宗의 佛教彈壓에 영켜있는 派閥간의 抗爭에서도, 이들 宦官을 주축으로 했던 한 세력과, 皇帝와 官僚들이 중심이 되었던 한 세력간의 政治的 對立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展開되어 간 것 같다. 前者는 佛教信者이던 仇士良과 魚志弘을 그 중심 인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後者는 傳統的 官僚主義者인 李德裕와 李紳을 그 대표자로 내세울만 하다.

武宗의 佛教彈壓을 前·後兩期로 나누어 고찰해 보면 그 성격은 서로가 매우 다르다. 前期를 會昌元年(841)에서 仇士良이 死亡한 會昌 3年(843)까지로 잡아 보면, 이 시기는 그 당시 법람한 僞濫僧·私度僧들의 還俗과, 莫大한 寺院財産·僧侶私財 등의 沒收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하니 彈壓이라기 보다 오히려 制限이라고 함이 타당하겠다. 그러나 後期——仇士良이 죽은 뒤부터 會昌 6年(846)까지——에 있어서는 彈壓의 양상은 매우 다르다. 이 시기는 彈壓이 아니라 唐 帝國內의 佛教를 絶滅코자 했다 해도 결코 과한 표현은

* 史學科 助教授

註 ① 舊唐書 卷 184, 新唐書 卷 207, 208, 宦官傳.

宦官에 의하여 殺害된 두 皇帝는 憲宗과 敬宗이며, 이들에 의하여 擁立된 일곱 君主는 穆宗·文宗·武宗·宣宗·懿宗·僖宗·昭宗 등이다.

아닐 것 같다.

물론 宦官 仇士良의 죽음이 武宗의 佛教政策에 이와 같은 급변화를 가지고 왔던 유일한 이유라고는 단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武宗이 仇의 힘에 의하여 帝位에 올랐던 사실과, 仇는 當時 軍의 指揮權을 장악하고 있었던 人物이었음을 감안할 때, 仇의 죽음이 武宗의 佛教彈壓에 전혀 무관했던 사건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상 싶다.

傳統的으로도 그러했지만 武宗 때의 宦官들도 宮中の 세력 다름에는 항상 學者·官僚들과는 對立해 있었다. 그러므로 學者·官僚들은 이들 宦官勢力을 몰아 내는 한 方便으로, 佛教에 대한 격렬한 공격을 가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로는, 佛教에 대해서는 얼핏 보아 憎惡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學者나 官僚들 까지도, 잔악한 宗教彈壓을 감행했던 皇帝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武宗의 佛教彈壓은 諷景 澤潞(昭義) 節度使 劉稹의 反亂과도 연관성이 있는상 싶다. 왜냐하면 政府가 이 反亂을 鎮壓하는 過程에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佛教가 연좌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이것 또한 政治와 宗教가 反目 對立했던 좋은 例라 하겠다.

이 小論에서 필자는, 武宗의 佛教彈壓을 둘러 싸고 야기되었던 權力層 內部的 派閥의 對立만을 究明하여, 宦官勢力이 佛教政策에 끼친바 영향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밝힐 것이며, 나아가 澤潞의 反亂鎮壓과 佛教의 彈壓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究明해 보고자 한다.

II

武宗은 帝位에 오르기 전에도 이미 道教에 對한 관심이 지대했지만^② 佛教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이 事實은 그가 即位하자 곧 長安 宣陽坊에다 寺院 하나를 再建하고 50人 以上の 僧을 모아 法要를 營爲했고,^③ 그 다음 해 9월에 가서는 太和 9年(835) 이래 中斷되어 왔던 「俗講」을 長安의 7大 寺院에 명하여 다시 開催케 했던 事實만으로도 수긍이 간다.^④

그런데 武宗이 佛教에 대해 偏狹한 태도를 나타낸 것은 會昌元(841)年 6月 그의 「降誕日」의 축하연에서다. 『入唐求法 巡禮行記』(以下巡禮行記라 略) 卷 3에,

(會昌元年) 六月十一日 今上降誕日 於內裏設齋 兩街供養大德及道士集 談經四對論議 二個道士賜紫 釋門大德惣不得着

이라 있듯이 그의 降誕日에 內裏에서 齋會를 베풀고, 左右兩街의 供養大德과 道士를 各 2名

註 ② 舊唐書 卷 18 武宗本紀.

③ 巡禮行記 卷 3 開成 5年 9月 6日條.

④ 巡禮行記 卷 3 會昌元年 9月 5日條. 又勅於左右街七寺 開俗講

씩 불러 「談經」케 했으나 不公平하게도 道士 2名에게만 紫衣를 下賜했을 뿐, 2僧侶에게는 아무런 報賞도 하지 않았다는 消息을 전하고 있다. 武宗의 이러한 태도는 그 뒤 每年의 降誕日이면 언제나 있었던 일이었으니 만치, 僧侶들에게는 새삼 奇異한 일은 아니었다. 심지어는 佛敎에 對한 彈壓이 시작된지 췌 時間이 지냈던 會昌 4年(844)의 降誕日 까지도, 恒例의 宗敎 討論會에 佛敎僧을 招待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報賞에는 매양 누락되었다.

『巡禮行記』는 被害者쪽인 佛敎徒의 記錄이니 만치 우리는 그 內容을 모두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췌 위험한 일인줄 안다. 그러나 그 속에서 武宗의 道敎偏愛에 관한 증거만은, 嚴選한다 해도 누구나 쉽게 찾아 내어 例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巡禮行記』의 著者 圓仁의 證言을 들어보면,

今上偏信道敎 憎嫉佛法 不喜見僧 不欲聞三寶 長生殿內道場 自古已來 安置佛像經敎 抽兩街諸寺 解持念僧三七人 番次差入 每日持念 日夜不絕 今上便令焚燒經敎 毀折佛像 起出僧衆 各歸本寺 于道場內 安置天尊老君之像 令道士轉道經 修練道術

이라 했다. 즉 武宗은 偏狹한 道敎信者며 佛敎를 憎惡하고 있다. 옛 부터 長生殿 內道場에 安置되어 오던 佛像과 經典은 파괴 또는 소각되어지고 天尊老子像이 代置되었다. 또 佛敎儀式을 대신하여 道經과 道術을 修業시켰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듯 武宗의 道敎偏愛는 佛敎彈壓에 크게 作用하게 된 것이고, 그것은 武宗이 道術·神仙術 등에 매혹되면서 부터 狂的으로 변해 갔다.^⑤ 이러한 問題는 佛敎彈壓이 보다 더 經濟的인 理由에서 斷行되었다^⑥고 하는 見解와 더불어 이미 究明된 것 들이며, 또한 本 論文의 研究對象 밖이기도 하다.

中國에 있어서 學者·官僚들의 反宗敎的인 行爲는 傳統的이며 合理主義的 思考方式에 起因된다. 그것은 政治가 安定되고 그들이 國家의 主導權을 장악하게 되면 더 현저해 진다. 그 代表的인 例는 元和14年(819) 憲宗에게 上奏한 韓愈의 「佛骨表」^⑦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佛敎를 夷法·法毒·倫常·僧弊·神奇 등의 問題를 예들어 혹독하게 비난했다. 이러한 思想은 확실히 佛敎에 對한 中國의 儒敎主義的 官僚知識階級이 가지는 전통적인 생각이다. 그러기 때문에 佛敎에 對해 惡感情이 없다고 보아지는 學者 官僚들 까지도 선뜻 佛敎彈壓에 同調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서는 李德裕도 例外는 아니었다. 즉 그도 武宗의 佛敎彈壓政策을 立案했던 主役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다. 『巡禮行記』卷3 會昌 2年(842) 3月3日條에,

三月三日 李宰相聞奏僧尼條疏 勅下發遣保外無名僧 不許置童子沙彌

라 기술하고 있다. 물론 李德裕의 上奏文이 佛敎彈壓의 도화선이 되었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 왜냐 하면 上奏文의 內容은 다만 保外僧과 無名僧의 還俗 童子沙彌의 채용만을 反對하고

註 ⑤ 拙稿, 唐 武宗의 道敎信仰, 史學志, 第2輯, 檀國大學校史學會, 1968.

⑥ 拙稿, 唐 會昌破佛에 關한 諸問題, 延世大學校大學院, 서울, 1959. 拙稿, 武宗의 佛敎政策, 史學會誌, 第4輯, 延世大學校 史學研究會, 1964.

⑦ 唐會要 卷 47.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佛敎傳來 이후 中國王朝에 의해 항상 되풀이 되어 오던 政策 가운데의 하나다. 또 이러한 制限은 官僚 識者階層에만 지지되었던 것은 아니고 佛敎의 篤信 자들에게 까지도 환영되었던 바이다.

李德裕가 佛敎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는 枚舉하기 힘들지 않다. 『巡禮行記』 卷1 開元 3年(838) 11月 7日條에,

相公始自月三日 於當寺瑞像閣上 刻造三尺白檀釋迦佛像

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李德裕가 揚州 開元寺 瑞像閣에다 釋迦佛를 刻造한다는 內容의 글이다. 圓仁은 다시 계속하여 기록하기를, 數日뒤 李德裕가 來寺하여 工事進陟을 시찰하고 禮佛한 뒤, 寺院修理費로 米「百斛」를 喜捨했다고 했다. 더욱이 놀랄만한 일은, 開元寺 瑞像閣 復元費의 모금을 위하여 그는 佛敎講會를 1個月 이상이나 계속 主催했다는 사실이다. 이 法會에서 日本 遣唐使 一行도 銅貨 50貫을 喜捨하고 있으며, 李 自身도 錢「一千貫」을 布施하고 있다.^⑧

李德裕가 先帝의 忌日에 開元寺에서 佛敎儀式에 따라 禮佛하고, 揚州地方의 僧正을 任命했던 일들은, 儀禮的 또는 行政的 職務遂行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佛像의 新造나 閣樓의 再建 등 일련의 일들은, 李의 佛敎에 對한 關心度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그였으니 만치 武宗의 혹독한 佛敎 彈壓政策을 앞장서 立案하거나 支持해 나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앞서 論及한 바와 같이 그는 다만 狹量한 傳統的 合理主義的 충실한 官僚에 지나지 않았다고 봄이 오히려 타당한 견해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佛敎政策에 있어서도 合理的 方便이 강구되었고 彈壓의 度에 있어서도 가혹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佛敎에 對한 그의 태도를 다른 면으로 고찰해 본다면, 그는 그 當時의 政治的 派閥싸움에서 機會主義的 입장을 취해온 것이라 해도 별 異意는 없을 줄 안다.

李德裕가 狹量한 合理主義的 충실한 官僚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日本 遣唐使가 그들의 學問僧을 위하여 巡禮「請願書」를 그에게 提出할 때, 함께 獻納한 日本의 土產物을 모두 反送해 왔던 일에서나, 또 圓仁 自身이 天台山 巡禮를 許可 받기 위하여「請願書」를 發送했을 때 같이 보낸 많은 선물 가운데, 소라고동(法螺貝)만을 받고 나머지 다른 물건은 모두 反送해 오면서, 오히려「白絹二匹」과「白綾二匹」을 이 外國僧들에게 布施했던 일들^⑨에서 그의 성격의 일면을 엿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言及한 佛敎彈壓에 관한 嘆願書도 과연 李德裕 自身の 所作인지 아닌지도 극히 의심스럽게 된다. 그러면 佛敎政策을 立案하고 彈壓을 策동했던 주동자는 李德裕 아닌 다른 사람에서 찾아 볼 수 밖에 없다. 이미 라이샤워教授도 지적한 바 있지만^⑩ 이 嘆願書의

註 ⑧ 巡禮行記 卷2 開元 4年 1月 7日條.

⑨ 巡禮行記 卷1 開成 3年 11月 16~17日條.

⑩ E.O. Reischaur,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New York, 1955.

제출자는 李紳이었으리라고 일단은 추측해 본다. 그 이유인 즉, 圓仁은 그의 日記에서 李德裕의 뒤를 이어 淮南 節度使로 부임한 李紳을 李德裕와 혼돈하여 「相公」이라 부르고 있으며 李紳에 의해 提出된 다른 하나의 嘆願書가 佛教彈壓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⑩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李紳이 節度使로 있던 揚州地方에서는 佛教의 彈壓이 가장 엄했다는 事實이다. 『巡禮行記』 卷4 會昌 5年(845) 6月 28日條에는

(六月)廿八日到揚州 具城裏僧尼正裏頭 遞歸本貫 擬折寺金錢物莊園鍾寺 官家收檢 近勅有牒來云 天下銅佛錢佛畫毀碎 稱量斤兩 委鹽錢司收管訖 具錄聞奏者

라 하고, 같은 7月 3日條에는 다시

李紳相公管內 准勅遞過過人 兩日停留 便是違勅之罪

라 하여, 管內를 통과하는 僧尼들의 滯留까지도 嚴格히 제한하고 있다.

여하튼 佛教彈壓의 立案者가 李紳이건 李德裕이건 간에 이들은 다만 儒教的 合理主義的 官僚 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儒敎이외의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았던 것 같다. 왜냐 하면 그들은 武宗이 會昌 4年(844) 3월에 단행했던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武宗은 佛教의 「三長月」을 廢止하고 그 代身 道敎의 「三元月」을 신설한 것에 대한 不滿을 上奏하여 諫하고 있다.

宰相李紳李德裕奏 停三長月 作道士教 新定三元月 正月上元 六月中元 十月 下元 唐國恒株 三長月 不許飯命 今上則不然也

라 한 것이 그것이다. 佛教에 대한 制限 뿐만 아니라 道敎에도 이 制限의 원칙을 적용코자 했던 이들에게는 큰 실망을 주었음이 明白하다.

그런데 佛教의 彈壓에 대한 學者 官僚集團의 立場에는 더 복잡한 政治的인 복선이 숨어 있었던 것 같다. 皇帝와 행동을 같이 한 이들 官僚集團은, 佛教自體의 彈壓에만 그 目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들 集團에 대한 強力한 政治的 對立關係에 있던 宦官勢力의 제거와 깊은 관계가 있었음이 分明하다. 왜냐 하면 佛教의 彈壓은 곧 宦官勢力의 除去를 뜻하며, 反面 그들 勢力의 伸長을 의미하는 까닭이다.

宮廷內部的 派閥的 對立의 경쟁자는 軍事權을 장악하고 있었던 宦官集團이며, 또 이들 모두가 佛教의 독신자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學者 官僚集團이 宦官勢力을 除去하려고 하던 노력과 동시에, 皇帝가 佛教를 彈壓하려던 시도에 밀접한 相互關係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確言할 수 있는 것은 官僚集團이 佛教의 彈壓을 支持한 것은 分明히 君主와 宦官과의 사이를 띄어 놓으려는 努力의 일단이었던 것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註 ⑩ 巡禮行記, 卷 3, 會昌 2年 10月 9日條. 又准宰相李紳聞奏 因起此條疏

III

玄宗 이후 宦官勢力이 漸大해 가는 과정에는 여러가지의 원인이 있었겠지만 무엇 보다도 重要的 原因은 그들이 禁軍을 장악하거나 樞密를 管掌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薩孟武氏는 『中國社會政治史』 第3冊에서 宦官이 專權驕橫하게 된 原因을 다음 세가지로서 설명하고 있다. 즉 1. 領財庫, 2. 管樞密, 3. 掌禁兵 등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矢野主稅氏도 唐代 宦官의 權勢獲得의 原因을 一般의인 것과 特殊的인 것으로 細分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⑭ 그는 一般的 原因으로 1. 宮中에 常住하면서 쉽게 皇帝와의 접근이 가능했다는 점과, 2. 그들은 養子制를 이용하여 그들의 勢力을 持續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어 그는 特殊的 原因을 예증하기를 1. 戰亂의 빈발이 宦官勢力을 增加시켰다고 하며, 2. 宦官들의 自覺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3. 宦官에게 使職을 任命했다는 것이고, 4. 宦官이 神策軍을 管掌했다는 것이며, 5. 樞密使, 翰林學士院使를 이들로써 充任했다는 것과, 6. 唐末 宦官들은 大規模로 「假子制」를 採用했다는 것 등이다.

玄宗 이후 급격히 증대한 宦官勢力^⑮은 다른 將·相들의 權力을 능가하게 되었고, 보다 高位官僚에로의 進出마자 이를 宦官의 背景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 좋은 예를 舊唐書 卷 184 高力士傳에서 찾아 보면,

每四方進奏 文表必先呈力士 然後進御 小事便決之 玄宗常日 力士當上 我寢則穩 故常止於 宮中 稀出外宅 若附會者 理望風彩 以冀吹噓 竭肝膽者多矣 宇文融 李林甫 李適之 蓋嘉運 韋堅 楊慎矜 王鉷 楊國忠 安祿山 安思順 高仙芝 因之而取將相高位 其餘職不可勝紀.

라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간다. 더욱이 肅宗朝의 宦官 李輔國의 弄權은, 高力士의 그것도 비길 바가 못된다.^⑯

그러다가 元和(806~820) 이후에 접어들면서 부터 宦官들의 권세는 그의 절정에 달한 느낌이 간다. 「握兵宮闈 橫利天下 天子廢立 由其可否 于撓庶政」^⑰이라고 한 것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宦官들의 弄權은 비단 中央에서 뿐만 아니라 藩鎮에서도 마찬가지로다. 監軍使가 된 그들이 節度使를 困辱케 했던 事例도 허다하다.^⑱ 더욱이 李德裕가 말하고 있는,

每軍各有宦官者爲監使 悉選軍中驍勇數百爲牙隊 其在陳戰鬪者 皆怯弱之士^⑲

註 ⑭ 史學雜誌 63編 10號.

⑮ 通鑑 卷 210 開元元年 7月己巳條. 以高力士爲右監門將軍 知內侍省事……上(玄宗) 在藩邸 力士傾心奉之及爲太子 奏爲內納事 至是以誅蕭岑功賞之 是後宦官稍增至三千餘人 除三品將軍者浸多 衣緋紫至千餘人 宦官之盛自此始

⑯ 同上 卷 221 乾元 2年 4月條. 太子詹事李輔國 自上(肅宗)右靈武 判元帥行軍司馬事 侍直帷幄 宣傳詔令 四方文奏 寶符契 晨夕軍號 一以委之 及還京師 專掌禁兵 常居內宅 制勅必經輔國押署 然後施行

⑰ 舊唐書 卷 190 劉蕡傳.

⑱ 舊唐書 卷 161 劉蕡傳.

⑲ 舊唐書 卷 248 會昌 4年 8月戊申條.

란 것에서는, 그들 自身の 牙軍도 있었음이 確證된다. 趙翼은 廿二史劄記 卷20에서 唐代 宦官의 禍를 論하면서,

至唐則宦官之權 反在人主之上 立君弑君廢君 有同兒戲 實古來未有之變也

라 하고 있다. 이 사실은 宦官勢力이 어떠한가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宦官 仇士良도 武宗을 帝位에 오르게 한 장본인이다. 즉,

乃中尉仇士良魚弘志 矯詔廢成美 立穎王漣爲皇太弟 即位 是爲武宗 是武宗之立 由仇士良等之力也^⑮

라 한 것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연유로 仇는 驃騎大將軍에 임명^⑯되어 圓仁이 기술하고 있듯이, 그는 나라의 軍事를 장악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圓仁은 그의 日記 會昌元年(841) 4月 9日에다, 당시 仇의 權力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는 조그마한 事件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仇가 長安城 북쪽 大明宮 구내에 있는 自身の 사무소 뜰에다, 「仇公紀功德政之碑」를 建立했던 일과, 이 碑의 除幕式에 皇帝自身도 참석했다는 내용의 기록이다. 舊唐書 卷18 武宗本紀 會昌元年(841) 2月條에도,

車駕幸昆明池 賜仇士良紀功德碑 詔右僕射李程爲其文

이라 하고 있다.

會昌2年(842) 10月 佛教彈壓에 관한 최초의 勅令이 발표되었을 때, 그 命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左衛功德使의 職責에 있었던 仇士良은, 그 命令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反對하고 나섰다. 즉,

准勅條疏天下大同諸州府 中書門不牒行京城內仇軍容拒勅 不欲條疏 緣勅意不許 且許請權停一百日內帖諸寺 不放僧尼出寺^⑰

라 있는 것이 佛教에 대한 仇의 態度를 잘 설명하고 있다. 勅令 시행을 100日間이나 뒤로 미루도록 했던 결과는, 10月 7日로부터 꼭 100日이 되던 會昌 3年(843) 1月 18日 까지 長安에서는 僧尼의 추방을 단행치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仇가 실시했던 僧尼還俗도, 나이가 많아 耄耋한 者와, 戒律을 엄수하고 佛法修業에 專念하던 자들은 還俗에서 除外했다. 다만 「不修戒行者」와 私財愛惜하여, 自己 스스로 還俗 되기를 바라던 僧尼까지 포함하여 都合 1,232名 뿐이었다. ^⑱ 더욱이 外國僧에 대한 仇의 태도는,

廿八日早朝入軍裏 青龍寺南天竺三藏 寶月等五人 興善寺北天竺三藏 難隨一人 慈恩寺瀨子國僧一人 資聖寺日本國僧三人 諸寺新羅僧等 更有龜茲國僧 不得其名也 都計廿一人 同集左

註 ⑮ 廿二史劄記 卷 20.

⑯ 新唐書 卷 207 仇士良傳.

士良遷驃騎大將軍封楚國公 弘志韓國公 實封戶三百

⑰ 巡禮行記 卷 3 會昌 2年 10月 7日條.

⑱ 巡禮行記 卷 3 會昌 2年 10月 9日條.

左衛功德使奏 准勅條疏僧尼 除軍已衰老及戒行精確外 愛惜資財 自還僧尼共一千二百卅二人

神策軍軍容衙院 喫茶後見軍容 軍容親慰安存 爲日各歸本寺²²

라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自己管下の 外國僧에 대하여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은 仇土良의 佛敎에 대한 태도는 彈壓에 영킨 派閥의 대립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파벌적 대립은 仇가 死亡한 뒤, 즉 會昌 3年(843) 6月 이후에 가서야 表面化되어 진다. 皇帝나 官僚主義者들은 마치 仇가 죽기를 기다리길라도 한 듯이 —실제로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仇가 죽은지 이틀만에 그의 幕僚 4名을 斬刑하고, 그들의 가옥 또는 奴婢 까지도 沒收해 버렸다. 『巡禮行記』卷4 會昌 3年(843) 6月23條에,

仇軍容薨 勸送孝衣 廿五日勅斬仇軍容孔目官?中丞張端公等四人 及男女奴婢等 盡殺破家 했다는 것이 곧 그 때의 사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年 뒤에는, 仇自身이 居住했던 家屋이 破壞당하고 養子마자 打殺되고, 집안이 沒落되어 가던 광경을 圓仁은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²³

이 事件은 단순히 1個 宦官의 死後를 욱되게 했던 것으로만 해석되어 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좀더 의미심장한 문제가 영켜있는 것 같다. 그것은 會昌 5年(945) 4月, 兩街 神策軍 指揮權 이양을 둘러싸고, 宦官과 皇帝·官僚들 사이에 야기되었던 對立이 그간의 경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圓仁은 그의 日記에다 中國의 正史나 다른 史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興味 있는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巡禮行記』卷4 會昌 5年(845) 4月條에다,

左右神策軍者天子護軍也 每年有十萬軍 自古君王頻有臣叛之難 仍置此軍已來 無人敢奪國位 勅賜印 每中尉初上時准勅出兵馬迎印 別行公事不屬南司 今年四月初有勒索兩軍印 中尉不肯納印 有勅再三索 勅意索護軍印 付中書門下合宰相管兩軍事一切 ?令取相處分也 左軍中尉即許納印焉 右軍中尉不肯納印 遂奏云 迎印之日 出兵馬迎之 納印之日 亦須動兵馬納之 中尉意勅若許 即因此便動兵馬起異事也

라 있어, 皇帝·官僚와 右神策軍 中尉 사이에 있었던 龜裂을 짐작케 한다. 즉, 皇帝가 兩軍의 指揮權을 行政官僚에게 移管시키고자 했을 때, 左神策軍 護軍中尉며 李德裕의 親友이던 楊欽義는 指揮權을 상징하는 印의 반납을 동의했다. 그런데 右神策軍 護軍中尉이며 宦官이던 魚弘志는, 만일 印의 反納을 강요한다면 兵馬의 動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이 결과 皇帝, 官僚들은 당초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宦官勢力의 除去를 시도하려던 노력은, 이전에도 그러했듯이²⁴ 이 사건 이후에도 꾸준히 시도되었다. 그러나 萬一 이때까지 仇가 生存해 있

註 22 巡禮行記 會昌 3年 1月 28日條.

23 巡禮行記 卷 4 會昌 4年 9月 10日條.

天子怒當時打殺 勅令捉其妻女等疏出於外削髮 令守陵墓 仍作中官收納家中錢物 象牙滿屋 珠玉金銀等盡皆滿庫 錢帛疋?不知數 每日卅乘車 般入內庫 一月之內般運不盡 自餘寶現奇異之物 不可計數 皇帝到內庫看拍手恠云 朕軍不曾有此等物 諸高班低頭不語

24 舊唐書 卷 18 武宗本紀 會昌 2年 4月條.

時有僞人 告中尉仇土良言 宰相作赦書 欲滅削禁軍衣糧馬草料 土良怒曰 必若有此軍人 須至樓前作鬧 宰相李德裕等知之請開延英訴其事 帝曰奸人之詞也 召兩軍中尉諭之曰 赦書出自朕意 不由宰相 況未施行 公等安得此言 土良惶恐謝之

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결코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며 佛敎의 彈壓도 極端으로 흐르지 못했을 것은 分明하다.

IV

武宗朝에 있어서 가장 컸던 事件은 靑景 나라안 문제로는 澤潞의 反亂이었으며, 나라 바깥 일로는 廻鶻과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前者나 後者할 것 없이 그들의 討伐過程에서 宗敎가 개재되어 희생당했다는 事實이다. 澤潞의 反亂에는 佛敎가, 廻鶻戰爭에는 摩尼敎가 彈壓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會昌 3年(843) 4月 澤潞(昭義) 節度使 劉從諫이 死亡하자 後繼者 任命問題로 그의 姪인 劉稹은 中央에 叛旗를 들었다. 穆宗 때 澤潞 節度使로 任命된 稹의 祖父이던 悟 때에도 이미 中央과는 서로 反目하고 있었다.^⑤ 더욱이 從諫 때 오면,

乃與幕客張公陳揚庭 謀效河北諸鎮 以第右驍衛將軍從素之子稹爲牙內都知兵馬使 從子匡周爲中軍兵馬使 孔目官王協爲押牙親事兵馬使 以奴李士貴爲使宅十將兵馬使 劉守義劉守忠董可武崔玄度分將牙兵^⑥

했다고 있으니, 이들 澤潞 劉氏들이 中央에 대해 취한 態度와, 그들의 軍組織이 어떠한가를 짐작케 한다. 劉從諫은 「馬牧及商旅를 榷」하여 歲入은 5萬緡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鹽鐵의 專賣에서 얻어지는 數萬緡의 歲收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管內 大商들을 모두 牙職에 任命하여 諸道를 往來하며 무역에 從事시켰다고 한다.^⑦ 이러하니 軍事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이들은 武宗朝의 藩鎮勢力을 대표한다 해도 과찬은 아니다.

圓仁은 그의 旅行記 가운데, 澤潞反亂의 추이와 그것이 國家財政에 미친 가공했던 사태를 상술한 뒤, 長安 平康坊에 設置된 潞州 節度使의 留後院 押衙 薑孫에 관한 사건을 기술함으로써, 이 反亂과 佛敎彈壓과의 어떤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다. 『巡禮行記』卷4 會昌 3年 9月 13日條에,

九月十三日……潞府留後院 在京左街平康坊 路(潞)府押衙薑孫 在院知本道事 勅令捉其人 走脫不知去處 諸處尋捉不獲 唯捉得妻兒女等 斬煞破家 有人告報 路府留後押衙薑孫剃頭 今在城僧中隱藏 仍勅令兩街功德使 疏理城中等僧 公案無名者 盡勒還俗 遞歸本貫 諸道州府亦同斯例 近住寺僧 不委來由者 盡捉京兆府 投斬?頭僧 於府中打殺三百餘人 其走藏者 不敢街裏行也

라 기술하고 있다. 즉, 平康坊에 駐在하던 潞府 留後院 押衙 薑孫이, 剃頭하고 城內의 僧 가

註 ⑤ 舊唐書 卷 161 劉悟傳.

⑥ 通鑑 卷 247 會昌 3年 4月條.

⑦ 通鑑 卷 247 會昌 3年 4月條.

운데에 숨었다는 密告에 따라, 僞濫僧·無牒者 등을 모두 還俗시켜 本貫으로 돌아 가게 했다. 이것은 비단 長安에서만 시행되었던 조치는 아니었으며, 「諸道州府」에서도 마찬가지로 단행되었다고 한다. 또 「近者 寺院에 들어 와서 居住하던 僧으로, 出身이 確實치 않은 者는 모두 京兆府官吏들에 의하여 300餘名이나 체포되어 처형되었다」고도 하고 있다. 이 결과 逃亡하던 僧이나 숨어 있는 者들은 城內를 나다닐 수 조차 없었다고 했다.

이러한 조치는 押衙 曷孫이 僧으로 변장하여, 寺院에 숨었으리라고 생각했던 政府官吏들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分明하다. 이즘의 佛教彈壓의 양상도 꽤 신경질적이다. 佛骨의 供養을 금지시킨다거나 代州五臺山·泗州普光寺·終南山五臺·鳳翔法門寺 등의 聖地巡禮를 禁止시키는 반면, 이 4個 聖域에 1錢이라도 布施하는 者와 受布施者에게는 各各 杖20으로 治罪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 4處靈境에는 巡禮者나 供養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無公驗者」에 대해서도 刑罰이 加해졌고 이들 名單은 모름지기 皇帝에게 報告되었다. 이와 같은 一連의 조치도 圓仁은 政府가 「恐路府留後押衙作僧 潛在彼處也」라 한 까닭이라 결론 짓고 있다.

澤潞反亂과 佛教彈壓 사이에는 또 다른 하나의 政治的 因果關係를 發見하게 된다. 그것은 反亂鎮壓에 莫大한 經費가 소요되었다는 事實과 그 反面 寺院에는 豊富한 寺財와 勞動力이 蓄積되어 있었다는 相互 배반된 現象이었다. 圓仁은 당시의 消息을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

打路府兵衆 每日用二十萬貫錢 諸州般載不及 又京城官庫物欲盡 有勅分欠百司判錢隨官尊卑 納錢多少用? 打路府兵糧 諸道州府官 皆同此例^㉘

라 하여, 反亂軍 鎮壓에 소요되는 費用이 每日 20萬貫錢이나 되었다는 것과 이 소요를 充當하기 위하여 臨時 所得稅의 一種이 官吏에게 附加되었다는 消息이다. 이러한 사태는 分明 國家財政의 위기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의 佛教의 彈壓도, 「天下의 蘭若·普通·佛堂·義井·村邑齋堂」 등이 200餘間에 未達되고 無額이면 모두 毀破했고, 僧尼들도 모름지기 還俗되어 色役に 종사시켰다. 또 石幢·墓碑 등 佛教의 제반 시설도 破壞하니 그 수는 長安에서만 300餘個所나 되었다고 한다.

武宗이 反亂의 鎮壓에 道教를 利用했다는 點은 興味롭다. 이때것 國家的 重大行事에는 반드시 佛教徒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었던 것인데 이 사건만은 오직 道教徒들만을 등장시켜, 反亂이 조속한 시일안에 鎮壓되기를 기원케 하고 있다. 圓仁은 日記에서,

爲破路府 勅召道士八十一人 又於內裏舍作九天道場 於靈處高疊八十張 床鋪設精彩 十二時行道祭天尊 乾脯酒肉間祭火羅天 四月一日起首 直到七月十五日爲終期^㉙

라 하고, 이어 武宗의 이러한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여하튼 潞府反亂의 鎮壓祈禱에 道教徒들을 등장시켰던 것은, 필경 反亂과 佛教徒와의 어떤 關係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註 ㉘ 巡禮行記 卷 4, 會昌 4年 7月15日條.

㉙ 巡禮行記 卷 4, 會昌 4年 三月條.

會昌 4年(844) 8月, 反亂이 鎮壓되고 劉稹과 大將郭誼 등의 斬首 150餘級이 長安에 도착되었을 때 武宗은, 「大笑曰 昭義已破 今未除者 唯是天下寺舍 兼條疏僧尼 都未了」⁹⁸라 한 것에서도 兩者의 關係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이 政治와 宗教가 對立충돌하는 예는 當時로서는 異常한 것도 아니며 비단 佛敎에 限했던 것만도 아니다. 唐 帝國과 廻紇 사이에 야기되었던 外交關係의 惡化는 及其也엔 摩尼敎의 탄압으로 飛火되었다. 舊唐書 卷18 武家本紀 會昌 3年(843) 2月條에,

在京外宅修功德廻紇並勒冠帶 各配 諸道收管 其廻紇及摩尼寺莊宅錢物等 並委功德使及御史台 京兆府差官 點檢收抽 不得容諸色人影占 如犯者並處極法 錢物納官 摩尼寺僧委中書門下條疏聞奏

케 했던 일들은 政·敎衝突의 결과라 하겠다. 圓仁도 그의 日記 가운데, 「勅令이 내려져 나라 안의 摩尼敎徒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그들의 頭髮은 剃髮되어졌고, 몸에는 佛敎徒들의 袈裟가 입혀져, 마치 佛敎僧들이 斬殺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摩尼敎는 廻紇族에 의하여 崇尚되는 宗教다」⁹⁹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圓仁도 摩尼敎가 彈壓을 받게 된 이유를, 廻紇族의 宗教였던 까닭이라고 논증하고 있다.

澤潞의 反亂은 潞府 留後院 押衙 璽孫의 逃亡이, 佛敎彈壓에 그 도를 더하게 된 한 계기가 되었다. 다시 그것은 寺院에 蓄積된 풍부한 資財와 勞動力이 反亂鎮壓에 소요되었던 막대한 경비 屢輸문제와 연관성을 가지고 發展해 갔다. 또 唐 帝國은 廻紇과의 外交關係가 惡化되자 摩尼敎徒들을 彈壓했다. 그것은 摩尼敎가 廻紇族에 의하여 崇尚되었던 宗教였던 까닭이었다.

이렇듯 政·敎의 衝突은 國家利益과 相互關係를 가지며, 복잡한 양상을 띄고 展開되어 갔다.

V

以上은 佛敎의 彈壓問題를 둘러 싸고 야기되었던 宮廷內部的 派閥의 대립關係를 고찰해 본 셈이다.

傳統의이며 合理主義의인 學者·官僚들의 反佛敎의 行爲는, 政治가 安定되어지고 그들이 國家의 主導權을 장악하게 되면서 부터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佛敎에 對하여 好意를 갖고 있었던 李德裕 까지도 彈壓에 동조했던 사실만 보아도 짐작이 간다.

그런데 이들 官僚集團이 佛敎彈壓에 積極 가담하게 된 이유는 좀더 복잡한 政治的 복선이

註 98 同上 會昌 4年 8同條 舊唐書 卷 18 武宗本紀 會昌 4年 8月戊戌條.

八月戊戌王宰傅 嶺首與大將郭誼等一百五十人 露布獻於京師 上御安福門受浮百寮樓前稱賀

99 巡禮行記 卷3 會昌 3年 4月條 僧史略下 會昌 3年條.

會昌 3年勅天下摩尼寺並廢入官 京城女摩尼七十二人皆死 及在此國廻鶻諸摩尼等配流諸道 死者太半

숨어 있었던 것 같다. 즉 그들 集團에 대한 強力한 政治的 對立者인 宦官勢力的 除去와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이 分明하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는, 武宗朝 宦官의 총수이던 仇士良이나 魚弘志 등은, 모두 佛教信者였을 뿐만 아니라 佛教의 옹호자이기도 했던 까닭이다. 佛教의 彈壓은 곧 宦官勢力的 除去를 뜻하며, 그 反面 官僚集團의 勢力伸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宦官勢力的 肥大는 安史의 亂 後가 되겠지만, 憲宗 元和年間(806~820)에서 唐末(907)까지 가장 強大했던 期間이었다. 이 사이 在位했던 10皇帝 가운데 宦官에 의하여 殺害되었던 君主가 둘, 그들이 翁립했던 皇帝는 일곱이나 된다. 이 사실은 곧 宦官들의 勢力이 어떠한가를 翁변으로 證明해 주고 있다.

宦官勢力的 肥大하게 된 原因은 여러가지가 있었겠지만 무엇 보다도 禁軍을 장악하고 樞密을 管掌했던데 그 첫째의 理由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까닭으로 軍權의 回收는 곧 宦官勢力的 除去를 뜻했던 것이다. 皇帝와 官僚集團이 시도했던 神策軍 指揮權 移管問題는 당시의 權力鬭爭의 一面을 설명해 주고 있는 좋은 예다.

武宗의 佛教彈壓은 澤潞(昭義)의 反亂鎮壓과도 부분적으로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 長安 平康坊에 設置된 潞州 節度使의 留後院 押衙인 璽孫이, 僧으로 변장하여 寺院에 숨었으리라는 密告에 기인되었다. 이 결과 僞濫僧・無牒者 등이 還俗되었고, 聖地巡禮나 布施행위 까지 금지되었다. 이것은 京城에만 해당된 조치는 아니며 諸道州府 등지에서도 마찬가지로 施行되었다. 둘째로는, 反亂鎮壓에 莫大한 經費가 소요되었다는 사실과, 그 反面 寺院에 는 풍부한 寺財와 勞動力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相互 배반된 현상에서다. 이러한 관계는 곧 寺財의 還收와 僧尼의 還俗으로 發展해 갔다. 이와 같이 政治와 宗教가 對立 衝突했던 事例는 당시로서는 異常한 것도 아니며, 비단 佛教에 限했던 것만도 아니었다.